

교육선교에 관한 연구

- 제주교육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

김도일(장로회신학대학교)

doilkim@pcts.ac.kr / 010-3634-6425

〈요 약〉

예수님은 모든 믿는 이들에게 교육선교의 사명을 맡기셨다.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교육선교론을 정립하였고 교육선교의 장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다루었으며 교육선교에 대한 이론 및 실천적 근거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교육선교를 수행하는 이는 자신이 누구인가 어떠한 일을 수행하는 이인가에 대한 균형잡힌 이해를 가져야 함을 밝혔다. 교육선교는 피교육선교인들을 존중하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가져야함은 물론이요 적당한 시점이 오면 현지에서 살아온 그들에게 모든 직임을 위임해야 함을 밝혔다. 그리고 본 연구의 초점 중의 하나인 제주도 내의 교회학교 내에서 어린이부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선교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실천방안에 대한 제안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교육, 선교, 교육선교론, 제주선교, 어린이부 정보 조사

I. 서론

자신들의 세대 이후에 존속하기를 원하는 모든 공동체는 교육에 관심을 가져야만 한다. 교육은 여러 세대를 거쳐 공동체를 보존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보존은 비전과 가치와 인지체계의 지속성을 확증하는 것이어야 하며, 이로 인하여 공동체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

게 된다. (Bruggemann, 2011)¹⁾

구약학자 월터 브루그만(Walter Brueggemann)은 신앙공동체 보존에 있어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위와 같이 강변하였다. 실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브루그만은 신앙공동체를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어서 그가 말하는 교육은 기독교교육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보아도 전혀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 앞에 존재하는 어떤 세대가 아직 신앙세계에 입문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은 당연히 선교를 통해 복음을 소개받아야 할 대상이다. 물론 이 말은 기독교신앙을 가진 이들이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더 훌륭하다는 말은 전혀 아니다. 그들은 단지 아직 복음을 접할 기회를 갖지 못하였을 뿐이다. 성경말씀에서 보듯이 때로는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이다(막 10:31). 본 논문은 교육선교에 관한 주제를 다루는 것으로 다음의 몇 가지 사안을 다루게 될 것이다.

- 첫째, 선교와 교육, 교육선교와 선교교육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 둘째, 교육선교현장의 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연구
- 셋째, 교육선교의 이론 및 실천적 근거에 대한 연구
- 넷째, 제주도 내의 교회학교 내에서 어린이부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한 교육선교의 가능성과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1) 이 브루그만의 글에 대한 인용은 Jim and Therese D’Orsa, “Education in Mission: Mission in Education,” Australian Association of Mission Studies Conference: The Christian Mission in the Public Square, Canberra, 2-5 October 2008에서도 서두에 인용된 바 있음을 밝힌다.

II. 교육과 선교의 상관관계: 선교교육인가 교육선교인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마 28:19-20)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며 모든 제자들을 향한 명령이다. 레슬리 뉴비긴(Lesslie Newbigin)의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우주적 통치에 관한 좋은 소식이다. 그것은 온 인류와 우주를 향한 굿 뉴스다”(Newbigin, 126). 그리스도께서 모든 신자에게 이러한 명을 내릴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선교의 담당자이며 우리의 유일한 교사”이시기 때문이다(Russell, 1972). 그의 위대한 명령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는 복음이 필요한 족속에게 가야한다(go). 그리고 그 족속으로 하여금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하여야 한다(make disciples). 마지막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야 한다(baptize). 이 세 가지 요소는 선교의 핵심이다.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선교의 사명을 받은 것이다. 선교라는 말은 보낸다는 라틴어 mittus, mitto에 근거한 ‘missio’를 어근으로 한 mission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선교는 한자 宣敎로써 ‘널리 가르침을 베풀다’ 혹은 ‘교령을 선포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를 우리말로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사명(使命), 임무(任務), 파견(派遣)이다(손운탁, 2011). 선교라는 단어는 어떤 종교를 전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가서-제자삼아-세례 베풀라”의 세 가지가 기독교 선교의 핵심요소이기 에 선교의 일차적 목표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 공동체에서 신앙고백을 함으로써 신앙공동체의 일원되게

하는 것이다.²⁾

그러면 교육은 무엇인가? 교육은 한자 가르칠 教 기를 育 이 합쳐진 단어이며, 이는 맹자(孟子)의 “得天下英才而教育之(천하의 영재를 모아 교육하다)”라는 글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져온다. 영어의 ‘education’, 독일어의 ‘erziehung’, 프랑스어의 ‘éducation’은 다 같이 라틴어의 ‘educatio’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끄집어낸다는 의미와 끌어올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 학습자의 내부적 능력을 발현시키고 미숙한 상태를 성숙한 상태로 만든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예수님의 명령 중에 가르쳐 지키게하라(teaching them to obey)가 이 부분에 속한다. 선교가 기독교의 도(道)의 핵심인 복음을 전하여 자연인에서 신앙인이 되어 신앙공동체에 속하게 하는 것이라면, 교육 더욱이 기독교교육은 기독교를 자신의 종교로 받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에게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수행하는 전 생애적 세움(lifelong edification)과 양육(nurture)의 과정이다.

선교와 교육이라는 두 개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선교와 교육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아니, 떼면 안되는 한 몸과 같은 개념,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념이다. 선교없는 교육없고 교육없는 선교가 없다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선교는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교육은 선교로 인하여 제자된 그를 온전한 신자 균형 잡힌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이가 선교를 수행하고 교육을 게을리 한다면 그는 반쪽 사역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만일 어떤 이가 교육에는 치중하면서 선교라는 첫 단추를 무시했다면

2)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제자를 삼는 일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손운탁이 지적한 것처럼 가고, 세례주고, 가르치고, 지키게하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는 모두 무엇을 꾸미는 분사형 동사로 되어 있고, 오직 제자삼으라는 명령만이 본동사인 것도 기억해야 할 점이다. 예수님의 명령을 선교와 교육으로 나누는 시도가 다소 무리가 있을 수 있겠으나 여기서는 교육선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시도를 한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기독교교육을 행했다기 보다는 하나님 없는 교육 그리스도를 망각한 교육 성령과는 상관없는 ‘교육’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선교와 교육은 늘 함께 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선교학을 주 학문으로 공부한 사람들은 선교교육(missiological education)이라는 말을 쓰고, 기독교교육학을 주 학문으로 공부한 이들은 교육선교(educational mission)라는 말을 대신 쓴다.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을까? 필자는 차이가 있다고 본다. 선교교육은 선교에 대한 교육이라고 정의한다. 선교교육은 선교학(missiology) 공부와도 일맥상통하며 선교가 무엇인지, 선교를 왜 하는지, 선교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공부이다. 손운탁과 같은 이는 선교교육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로 정의한다(손운탁, 2011). 이 때 선교교육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독교교육의 정의와 별반 다르지 않다.³⁾ 그의 정의는 본 논문에서 추구하는 교육선교와 구분지으려는 시도와는 그 의도가 다른 것이다. 선교교육은 선교에 대한 연구이다. 이에 반해서 교육선교는 교육을 통하여 수행하는 선교를 말한다. 요즘 적지 않은 이들이 복지선교를 말하는 것과 그 시도가 유사하다. 복지선교가 복지를 통한 선교를 의미하듯이, 교육선교는 교육을 통한 선교를 의미한다.

오늘날 많은 이들은 선교교육과 교육선교를 혼용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선교교육과 교육선교를 구분지어 다룰 것이다. 이러한 구분이 필요한 이유는 두 복합명사를 확실히 구분짓고 명확히 다룸으로써 사역의 초점을 더 예리하게 다듬고 우리가 가진 제한적인 에너지를 확실하게 쏟아 부을 수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 주장하는

3) 레티 러셀(Letty Russell)은 기독교교육을 “사람들을 참 인간성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참가하게끔 모든 자에게 대해서 주어진 그리스도의 초청에 자발적으로 기쁘게 참여케 하는 일”로 보았다. 그의 견해가 본 논문에서 필자가 다루는 교육선교의 개념과 흡사하다(Russell, 43).

교육선교는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론과 일맥상통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교회의 본질적 존재이유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선교하며 그 본질적 존재이유를 성취해 나가는 방법이 교육적 선교, 교육선교임을 인지할 때 더욱 그렇다. 선교적 교회론에 대해 한국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선교이며 선교는 어떤 활동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교회의 본질적 이해로부터 출발한다”(한국일, 2012). 더욱이 본 논문은 교육선교가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사회 속에서 교회가 본질을 되찾음으로써 기독교가 원동력을 회복하고, 번성할 수 있는 중요한 화두라고 믿기 때문이다. 교육선교가 가장 절실한 때가 바로 지금이다.

Ⅲ. 교육선교현장의 장과 선교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 대한 연구

교육선교에 대하여 생각할 때 교육선교가 실행되어야 할 ‘장’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데이비드 보쉬(David Bosch)가 지적한 것처럼 일반적으로 선교와 전도의 차이를 지리적인 것으로 간주되곤 하였다. 예컨대 선교는 지리적으로 먼 이방나라에서 하는 것이고 전도는 가까운 주변에서 하는 것이라는 개념이었다(Bosch, 1992). 그러다가 어떤 때는 선교와 전도를 지리적 차이보다는 신학적 차이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예컨대 선교는 아직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자들(not yet Christians)과 관계된 일로, 전도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닌 자들(no more Christians) 혹은 이름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들의 신앙을 다시 일깨우는 것과 관련된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Bosch, 1992). 아무튼 이제 선교에 대한 개념이 세분화된 시점에 사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선교가 어떤 문화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이가 자신의 생각

에 피선교인들의 열등한 문화를 복음으로 소위 “개종”을 시키는 일이라는 식민주의적 발상으로 시작되는 일이어서 안된다는 것이다. 기독교적인 서구와 비기독교적인 제삼세계로 선교의 장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도 무지한 행위라는 것을 필자는 주장하고자 한다.

최근 세속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어 교회에 출석하는 신도가 급속도로 적어짐으로 형편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서구의 몇 나라(예: 영국, 독일, 프랑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를 방문하여 교회와 교단사무실을 방문해 보고, 현지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만나면서 느낀 점이 참으로 많았다. 제한된 지면관계로 인하여 다 기록할 수는 없으나 적어도 이전에 기독교가 성행했던 유럽과 같은 지역에서는 선교사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자성어린 외침을 들었다. 현재 교회에 사람이 줄고 교단에서 파송하는 선교사의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그들을 무시하고 마치 한국교회가 유럽을 금세라도 복음으로 정복할 듯이 소위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개념을 견지하기 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선교동역자”를 파송하여 그루터기처럼 유럽과 이전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했던 나라의 교계지도자들과 선교를 사명으로 알고 평생을 바친 이들과 함께 일한다고 생각하는 편이 더 효과적이고 지극히 합당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보쉬는 자신을 선교사로 파송해준 영국에 35년의 선교사생활을 마치고 귀국하였을 때 너무도 세속화된 자신의 조국과 교회를 바라보며 이제는 더 이상 서구는 기독교 지역이고 제삼세계는 비기독교 지역이라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으며 선교가 일어나야 할 지역은 오대양 육대륙임을 천명하였다(Bosch, 1993, 28). 그리하여 그는 육대륙 선교 즉, *Mission in 6 Continents*를 말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에 사는 우리가 생각하고 에너지를 쏟아야 할 선교의 장은 해외의 비기독교 지역으로 일컬어져 왔던 제삼세계만이 아니라 그곳이 유럽이든 미주든 아니면 우리나라의 섬이나 시골이든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는 지역이면 그곳이 선교의 장이라는 이해를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존 스토틀(John Stott)가 말한 것처럼 선교는 복음(euangelion)의 구두 선포인 전도를 포함하는 그 이상의 것이며 사람의 경계, 이념의 경계, 지역의 경계, 사상의 경계를 넘어서는 교회와 성도의 본질적인 사명이다(Bosch, 1993, 32). 본래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자라나는 씨앗과 같아서(막 4:26-27) 끊임없이 변화하고 어떤 테두리에 조용히 머물기 보다는 자신이 존재하는 곳의 경계선을 지속적으로 넘어가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게 되어있다. 본 논문은 선교학만을 다루는 논문이 아니기에 이제 마지막 개념, 그러나 선교학에 관심있는 이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보쉬의 글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발적으로 진술한다.

선교의 근원은 기존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며, 교회 안에 속하는 어떤 특정한 선교부같은 기관에 있는 것도 아니다. 선교의 근원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은 선교사로서 세계를 향하여 모든 경계선을 넘어가신다. 하나님은 창조를 통하여 이미 선교의 하나님이셨으며, 그의 말씀과 영은 ‘선교사들’로서의 역할을 창조활동에서 하신 것이다(창 1:2-3)(Bosch, 1993, 283).

우리가 기본적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명제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선교사의 마음이다.”(Shenk, 1984; 정승현, 2007 재인용) 세상에 대하여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을 진 교회와 성도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섬기는 모습으로 모든 경계선을 넘어서는 선교를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에 교육선교의 사명이 있다.

IV. 교육선교의 이론 및 실천적 근거에 대한 연구

그러면 교육선교의 이론 및 실천적 근거는 무엇인가? 교육선교는 단순히 선교지에서 어떤 교육기관을 세워서 피선교인들에게 선교사가 가진 자신의 교육적 편견을 심거나 억지로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선교가 수행되어야 할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면밀한 관찰과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깊이 살펴봄으로써 생기는 공허히 여기는 마음에서 교육선교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조은하는 한국선교초기에 메리 스크랜톤(Mary F. Scranton)이 가졌던 균형잡힌 교육선교적 시각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은 인용을 하였다.

우리의 목표는 여아들로 하여금 우리 외국 사람들의 생활, 의복 및 환경에 맞도록 변화게 하는데 있지 않다. 우리는 단지 한국인을 보다 나은 한국인으로 만들므로 만족한다. 우리는 한국인이 한국적인 것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게 되기를 희망한다. 나아가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훈을 통하여 완전무결한 한국인을 만들고자 희망하는 바이다(이우정, 1985; 조은하, 2007에서 재인용).

스크랜톤의 시각이 균형잡혔다함은 그녀의 교육선교신학적 견해가 식민주의적이지 않다는 의미이며 겸손의 미덕까지 갖췄다는 의미이다. 교육선교의 신학적 입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 이어야 한다. 더욱이 어떤 민족의 문화나 관습도 다른 어떤 민족의 문화보다 하등하거나 우월하지 않다는 문화인류학적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국인으로 하여금 한국인으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으로 인하여 흠결이 없는 한국인을 만들고자 애썼던 스크랜톤의 생각은 오늘날 아시아와 아프리카 등과 같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덜 개발된 도상국들에 선교사로 나가있는 이들이 꼭 기억해야 할 교육

선교의 중요한 이론적 밑받침이라고 본다. 경제적 자립도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적 수준과 일치하는 것은 결코 아니며 설사 다소간의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문화적 결핍이나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육선교를 수행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문화적, 민족적 자존심을 인정하고 존중하여야 한다는 말이다. 스크랜톤의 교육선교적 노력이 한국 여성들의 인권신장과 사회적활동 촉진에 엄청난 기여를 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교육선교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각을 변화시켜주며 사회를 변화를 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교육선교의 또 다른 중요한 통찰은 선교지 현장의 사람들을 세워 일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많은 서양선교사들과 동양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교회, 학교, 병원을 세운다. 특히 교육선교에 매진하여 훌륭한 교육선교의 기반을 만들어내는 데에 일차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나 오랜 세월이 지나고 현지의 평신도 혹은 성직자들이 교육선교를 감당할 준비가 분명히 그리고 충분히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사가 대표 자리를 차지하고 그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910년 에딘버러 세계선교사대회에서 장신대 창립자 사무엘 마펏(Samuel Maffett)선교사가 회중 앞에서 행한 연설은 모든 교육선교를 감당하는 이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감동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다.

나의 일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날 중의 하루는 1907년 10월에 있었다. 그 때 여러 해 동안 그래함 리 목사(Graham Lee: 李吉成)와 나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의 조사(助事, 오늘날의 전도사 정도, 필자주)로 일해 오던 길 목사(길선주)가 안수를 받고 중앙교회의 목사로 취임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때부터 우리는 그를 돕는 조사의 자리로 한 발 물러났다. 나는 사람들이 목사로서 안수 받을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그들의 은사에 따라 그들의 민족을 복음화하기 위해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혀야 한다고 깊이 확신한다(Maffett, 2010).

만일 이러한 자세로 지교회에서 목회를 한다면 작금의 현실에서 종종 일어나는 원로목사와 후임담임목사와의 갈등도 없어질 것이라고 본다. 담임이나 어떤 지도자의 직은 단순히 일을 수행하기 위한 직임이지 어떤 권위의 상징이 아니기 때문이다. 교육선교를 수행하는 이들은 이 현지교회에서 파송되어 훈련받아 일하는 평신도를 다시 본교회로 파송하여 지도자가 되게 도와야 할 것이며, 자신의 이익이나 권위유지에 집착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선교를 생각하고 선교적으로 행동하기를 추구하는 이들은 대개 해외 선교를 염두에 둔다. 국내 선교는 전도라고 명하고 일반 평신도들의 역할을 전도 감당에 두는 경우가 많다. 선교사로 헌신하면 일단은 해외로 나가서 삶을 바치는 것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선교를 해야 한다는 개념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필자도 그러한 생각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나라 안에도 아직 선교가 필요한 곳이 너무 많다. 얼마 전 제주도에 출장을 가서 목회자들과 하던 중 제주도에 사역을 한지 오래된 한 목회자의 울부짖음을 들었다. 제주도는 관광지이고 섬이다 보니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육지로 가서 공부를 하고 육지에 정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은 제주도에 가톨릭교회와는 달리 개신교 미션스쿨이 없어서 어릴 때부터 복음을 들을 기회가 거의 없어서 복음화율이 턱없이 낮다는 말이었다. 그 때 그의 부르짖음은 마치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들의 환상,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행 16:9)고 했던 그것과 흡사한 것이었고 필자에게는 일종의 부르심의 경험이었다. 거의 십년동안 수많은 교수와 지도자들에게 호소하였으나 돕겠다는 의지를 가진 이를 만나지 못해 무척 실망하고 마음이 아팠다는 그의 탄식은 그리스도의 선교명령을 받은 믿는 부족한 필자의 가슴에도 메아리쳤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주교육선교 연구원은 탄생의 씨앗이 발아된 것이다.

지난 2013년 1월부터 4월까지 제주교육선교연구원(2012. 4. 10. 창립)

에서는 제주 교회학교 어린이부의 실태조사를 위한 매우 간략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고 교육선교의 가능성 모색을 위한 기초조사를 대개 방문과 전화조사, 우편물, 이메일 등을 통해 수행하였다. 아래에는 제주 교육선교의 수행을 위하여 실시된 기초 설문조사에 대한 결과물이다. 이를 통하여 향후 제주교육선교가 더욱 활발하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균형있게 진행될 것을 소망한다.

V. 제주도 내의 교회학교 내에서 어린이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선교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에 대한 연구

1. 제주도 교회학교 어린이부 실태조사 결과

먼저 이와 같은 조사를 하는 목적에 대하여 기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무엇 때문에 이러한 조사를 실시하는지에 대한 논거가 불분명하게 되면 연구의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조사는 현재 제주지역 교회학교 어린이부(초등학교 1-6학년)의 실태에 접근함으로써 제주 교회학교 어린이부의 현 상황과 당면한 실제 어려움을 확인하고, 이를 풀어나가기 위한 보다 나은 교육적 준비를 하는데 기여하여, 제주 교회가 제주의 다음 세대 복음화를 교육선교를 통하여 이루는데 보탬이 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주도의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 개요를 조사하는 것이 순서라고 판단되어 아래와 같은 조사를 하였다.

1) 개 요

- ① 인구와 교회의 수: 2010년 현재 제주도 내의 상주인구는 531,905

명이며, 현존하는 교회의 수는 396개 교회로 파악되고 있다(2010년 통계청 자료).

- ② 종교현황: 제주도 내의 종교인구 272,590 명(2005년도 제주 전체인구 530,686명의 51.3%)는 불교를 믿는 이가 약 173,658명(종교인구의 63.7%, 제주전체인구의 32.7%)이고, 천주교인은 54,764명(종교인구의 20.0%, 제주전체인구의 10.3%)이며, 개신교인 38,183명(종교인구의 14.0%, 제주전체인구의 7.1%)인데, 이는 안타깝게도 2005년 통계청 자료이며, 2010년 이후의 통계청 자료는 아주 없다.

- ③ 복음화율: 제주도 전체 인구의 7.1%로 대개 파악되고 있는데 이는 육지에 비하여 턱없이 적은 복음화율임을 알 수 있다.

- ④ 본 조사 표본수 1(지역) : 총 396개 교회 중 75개 교회(18.9%)

제주시(舊) / 30개 교회	서귀포시(舊) / 20개 교회
舊북군동(東) / 7개 교회	舊북군서(西) / 6개 교회
舊남군동(東) / 6개 교회	舊남군서(西) / 6개 교회

※ 조사자 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구역이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되어 있다. 이에 따라 조사하게 되면 지역적인 특성을 담아내기 어려워 옛 행정구역 구분으로 하였고, 옛 북군(北郡), 남군(南郡) 지역을 다시 동, 서로 나누어서 세분하였다. 제주도는 전체 인구 약53만 중 옛 제주시에 약 31만명, 서귀포시에 약 10만 이 거주하며, 나머지가 속칭 촌(옛 북군, 남군)에 살고 있다. 도시집중율이 높은 편이다. 옛 북군, 남군에 속해있는 교회가 많이 열악한 형편이다. 이곳의 교회의 교회학교 어린이부를 더 많이 표본 삼아 조사하면 좀 더 현실에 가까운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 ⑤ 본 조사 표본수 2(성인 교인수) : 75 개 교회

300명 이상 / 15개 교회	150-299명 / 20개 교회
------------------	-------------------

70-149명 / 13개 교회 40-69명 / 9개 교회
10- 39명 / 16 개 교회 9명 이하 / 2개 교회

※ 조사자 주: 제주도 내에 있는 396 교회 중 주일예배 성인 출석이 70명 이하인 교회가 주를 이루고 있다. 각 분포 비율로 교회수를 선정하여 조사하여야 했겠지만, 조사에 어려움이 많이 우선 접근 가능한 교회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⑥ 조사방법: 설문지로 면담, 탐문, 전화를 하였다.

2) 조직과 예산에 관하여

① 부서 구분 / 3부제(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22개 교회 29.3 %
2부제(1-3학년, 4-6학년) 5개 교회 6.6 %
1부제(1-6학년) 40개 교회 53.3. %
어린이부 없음 8개 교회 10.6 %

※ 조사자 주: 어린이부가 없는 지역은 옛 북군동, 북군서, 남군동, 남군서이다. 속칭 촌에는 어린이가 사라지면서 어린이부가 없어지는 현상이 있다. 조손 가정 등, 어린이들이 있다고 해도 보호자들이 교회에 우호적이지 않거나, 어린이들이 학원이나 지역아동센터 등에 흡수되어 어린이부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도시경우도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에서는 어린이부를 조직하고 유지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② 등록어린이 / 200명 이상
100-199명 5개 교회 6.6 %
50 - 99명 17개 교회 22.6 %
20-49명 32개 교회 42.6 %
5-19명 12개 교회 16.0 %

4명이하	2개 교회	2.6 %
어린이 없음	7개 교회	9.3 %

※ 조사자 주: 어린이는 있어도 어린이부가 없는 경우, 1개교회가 있다. 성인들이 1,5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도 어린이부(유년, 초등, 소년부)가 200명을 넘기는 교회가 없다. 교인들 자녀 외에 불신부모 자녀들이 교회 어린이부에 오는 것이 많지 않다는 반증으로 보인다.

③ 담당교역자 / 교육목사(부목사겸임)	14개 교회	18.6 %
교육전도사	31개 교회	41.3 %
교육간사	2개 교회	2.6 %
없음	28개 교회	37.3 %

※ 조사자 수: 교회의 경우 담당교역자를 두고 교육에 힘쓰려하지만 문제는 잘 준비된 교육지도자의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다. 교육목사로 별도로 있는 교회는 없고, 부목사가 겸임하는 경우이다. 교육전도사 중에 기독교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는 별도로 조사 해 보아야 할 부분이다. 주변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성서신학원에서 목회를 위한 신학 훈련을 받은 사람이고, 기독교교육을 공부한 경우가 드물다. 교회의 사정에 따라 선교단체의 간사를 교육전도사로 임명하기도 한다. 이 경우도 기독교교육을 위한 공부나 훈련이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④ 교사 / 20명 이상	7개 교회	9.3 %
16-20 명	8개 교회	10.6 %
11-15 명	17개 교회	22.6 %
6-10 명	21개 교회	28.0 %

5명 이하	12개 교회	16.0 %
교사 없음	10개 교회	13.3 %

※ 조사자 주: 교회학교 어린이부는 있어도 교사가 없는 경우가 2개 교회가 있다. 담임교역자나 사모님이 담당하는 경우다. 교사의 연령 분포는 정확한 조사가 어려웠다.

⑤ 교사훈련 / 교사임명 전 교사훈련	6 개 교회	8.0 %
교사임명 후 교사훈련	21 개 교회	28.0 %
정기적인 교사훈련(년1회 이상)	22 개 교회	29.3 %
교사훈련 없음	26 개 교회	34.6 %

※ 조사자 주: 면담 조사와 탐문 조사 결과 대부분의 교회에 교사 임명 전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교사훈련이 없고, 교사 임명 후 교사훈련도 체계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했다. 대체로 임명 후 1, 2일 저녁에 집회식 훈련이 대부분이었다. 정기적인 교사훈련은 담당교역자(교육목사, 교육전도사, 교육간사)에 의해 년 1회에서 3, 4회 정도 집회식으로 시행되고 있고, 내용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⑥ 어린이부 예산 / 100만-300만원	10개 교회	34.4 %
301만-500만원	7개 교회	24.1 %
501만-1,000만원	8개 교회	27.5 %
1,001만-2,000만원	2개 교회	6.8 %
2,001만 이상	2개 교회	6.8 %

⑦ 어린이부 예산(교회전체예산 대비) / 23개 교회 평균 교회전체예산 대비 3.6 %

※ 조사자 주: 어린이부 예산을 밝히기를 매우 꺼려하여서 조사

에 어려움이 많았다.

일단 응답한 29개 교회로 통계를 잡았으며, 응답한 교회도 교회전체예산을 밝혀준 23개 교회로 통계를 잡았다. 2,000만원 이상은 교육전도사 사례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 보인다.

3) 어린이 예배에 관하여

① 예배 소요시간 / 1시간 이내	33개 교회	44.0 %
50분 이내	7개 교회	9.3 %
40분 이내	19개 교회	25.3 %
30분 이내	7개 교회	9.3 %
20분 이내	1개 교회	1.3 %
어린이예배 없음	8개 교회	10.6 %

※ 조사자 주: 예배 시간이 한 시간 가까이 소요되는 교회가 약 절반 정도 되는 것은 예배의 설교와 공과공부를 연계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실태조사 자료> 3-4) 설교와 연계 부분 참조

② 예배 형식 / 전통어린이예배	54개 교회	72.0 %
와우키즈	2개 교회	2.6 %
메빅	3개 교회	4.0 %
기타(혼합형)	8개 교회	10.6 %
어린이 예배 없음	8개 교회	10.6 %

※ 조사자 주: 예배가 어린이들의 fun 욕구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예배에서도 이런 경향들이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지나치게 멀티미디어를 사용하는 것도 오히려 예배 집중에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듯 보인다.

③ 사용성경 /	어린이 성경	12개 교회	16.0 %
	새번역 성경	1개 교회	1.3 %
	개역개정 성경	51개 교회	68.0 %
	쉬운 성경	2개 교회	2.6 %
	기타	1개 교회	1.3 %
	어린이 예배 없음	8개 교회	10.6 %

④ 사용 찬송가 /	어린이 찬송가	29개 교회	38.6 %
	자체 제작찬송가	4개 교회	5.3 %
	어른 찬송가	7개 교회	9.3 %
	CCM(성인)	27개 교회	36.0 %
	어린이 예배 없음	8개 교회	10.6 %

※ 조사자 주: 어린이들이 어린이 찬송가 보다 CCM, 자체제작 찬송가는 대부분 CCM으로 편집, 어른 찬송가를 주로 부르는 현상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분 예배인도자가 교사들인데 교사들 위주로 찬송가가 선택되는 것으로 보인다. CCM이 과도하게 유행을 타는 것(한, 두 번 부르고 잊어버리거나 다시 부르지 않음)이 어린이들의 신앙형성과 신앙적 성품과 감성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숙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범교단적인 좋은 어린이 찬송가의 편찬, 보급, 사용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⑤ 설교소요시간 /	5분-10분	16개 교회	21.3 %
	11분-15분	35개 교회	46.6 %
	16분-20분	7개 교회	9.3 %
	21분-25분	3개 교회	4.0 %
	25분 이상	6개 교회	8.0 %

어린이설교 없음 8개 교회 10.6%

- ※ 조사자 주: 설교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리라고 본다. 설교자의 복음이해, 설교 이해, 어린이이해에 심각한 문제가 많이 발견된다고 한다. 예배와 설교가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나가는 점도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로 보인다.
- ※ 조사자 주: 통계로 잡기 어려운 예배의 영성(분위기)에 많은 숙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들의 예배 몰입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소란스럽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를 지도하는 교사들이 예배에 관한 태도도 염려스러운 부분이 많아 보인다.

4) 성서학습(공과공부)에 관한 것

① 배정 시간(소요시간)	/ 40분 이상	2개 교회	2.6 %
	30분 이내	26개 교회	34.6 %
	20분 이내	33개 교회	44.0 %
	10분 이내	5개 교회	6.6 %
	성서학습 없음	9개 교회	12.0 %

- ※ 조사자 주: 공과 공부가 20분 이내가 주를 이루는 것은 성서 학습이 피상적으로 흐르는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공과가 제공하는 학습활동을 할 수 없는 시간으로 생각된다. 이는 교사의 준비문제, 학습방 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어 보인다. 학습방 조사를 공과공부 준비가 대부분 개인별 준비로 나타나는데 실제로는 거의 준비하지 않고 가르치는 형편이다. 교회에서 한 주 전에 담당교육지도자 중심으로 공동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보는데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다. 교사들이 성실하게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할 실력을 교회가 키워주지 못하였기에, 교사들이 공과공부의 재

미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그래서 공과공부를 설교와 연계하는 경우가 많은 듯 한데, 이는 교육지책이며, 성서교육의 질을 떨어뜨리는 일로 보인다.

5) 돌봄과 행사에 관한 것

① 개별 상담시간 /	주1회 이상	7개 교회	9.3 %
	격주 1회 정도	7개 교회	9.3 %
	월 1회 정도	24개 교회	32.0 %
	없음	37개 교회	49.3 %

※ 조사자 주: 절반 정도의 교회학교 어린이부에서는 개별 상담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 섬세한 돌봄이 필요한 고학년에게는 더욱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담의 질을 제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한 교사들의 상담교육은 시급하다고 하게 보인다.

② 여름성경학교 /	자체적으로 시행	53개 교회	70.6 %
	위탁(선교단체 등)하여 시행	14개 교회	18.6 %
	여름성경학교 없음	8개 교회	10.6 %

※ 조사자 주: 어린이부 행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여름성경학교가 점차 퇴조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교회도 무박1일, 무박2일로 간소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위탁의 경우에는 교사들이 휴가를 낼 수 없는 경우가 많다. 겨울성경학교의 경우는 좀 더 위탁하는 경향이 짙고, 없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6) 자체교육목적과 중장기 교육비전

① 자체교육 목적 /	있다	36개 교회	48.0 %
	없다	39개 교회	52.0 %

※ 조사자 주: 자체 교육목적을 진술한 경우는 드물고, 표어 등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기독교교육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진술과 숙지가 필요하다고 본다.

② 중장기교육비전 /	있다	33개 교회	44.0 %
	없다	42개 교회	56.0 %

※ 조사자 주: 공동체적 합의에 따른 중장기 교육비전을 제대로 갖춘 교회가 많지 않아 보인다. 공동체적 교육적 일치를 위해 중요한 작업이라 생각된다.

7) 본 설문조사의 한계

본 설문조사는 제주도에서 어릴 때(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육지로 유학을 가는 설문과 다시 회귀하여 고향의 다음세대들을 위해 일하는 이들에 대한 조사가 미흡하며, 교회에 다니지 않는 교회 밖 사람들의 교회에 대한 인식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미래 교육선교전략을 세우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조금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시각에서 만들어진 설문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의 선교지 중의 선교지라고 할 수 있다. 한국 최대의 섬이며 수려한 경관을 갖고 있는 제주도는 모든 한국인의 자랑이며 나라의 보물과도 같은 관광지이며 세계 어디에 내어 놓아도 빠지지 않는 아름다운 섬이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과 달리 제주도는 기독교신앙을 일찍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개신교인들의 숫자는 턱없이 적은 것이 현실이다. 제주도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오늘날에는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고, 그 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업과 농업 등에 종사하고 있다. 바다에서 수자원을 의지하여 생계를 이어가는 이들이 많은 것은 당연한 현상이며 전통적으로 무속신앙을 가진 이들이 매우 많다. 위에서 보는 불교, 천주교, 기독교와 같은 삼대종교 중 하나를 갖고 있는 이들이 51.3%라면, 나머지 대부분은 무속신앙을 갖고 있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르게 기독교인구보다 천주교인 수가 많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천주교에서 1909년에 설립한 신성여자고등학교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 학교는 약 1200명의 여학생을 가르치는 학교로서 제주도 내의 천주교 신앙을 가진 어머니 양산을 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반해 유일한 개신교 미션스쿨인 제주중앙고등학교(상업고등학교로 시작한 실업계 학교)는 1952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는 장로와 권사가 각각 교장, 이사장으로 봉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적 신앙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본래 미션스쿨로서 설립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2013년 현재 아직도 비기독교인 교사가 봉직하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신앙교육이 어렵다고 알려진 것을 미루어볼 때, 이 학교가 지역사회에 미션스쿨로서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개신교 교육기관이 천주교학교보다 훨씬 늦게 생겼으며 이에 대한 댓가는 제주도 내의 개신교가 톡톡히 치루고 있다고 본다. 더욱이 제주도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육지로 조기 유학을 가는 학생들이 유난히 많은 현실이다. 이로 인해 제주도 내에 남아있는 기독교신앙을 가진 젊은이를 찾아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욱이 육지에서 교육을 받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회귀하는 이들은 드문 것이 현실이라고 현지의 목회자들은 증언하였다.

본 설문에는 다루지 않은 문제이지만 제주도의 복음화율이 약 7%밖에 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아마도 제사에 대한 문제일 것이다. 다른 지역과는 달리 토속종교와 조상에 대한 예의를 지극하게 챙기는 제주

도에서 제사는 생각보다 더 중요한 일이다. 1908년 이기풍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이후로 아직까지도 명확한 해결책을 찾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한국교회는 조상제사 중 절하기는 엄하게 금하면서도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추모예배는 많이 드리는 형국이다. 이는 하나의 토착화 과정이다. 한국일이 지적인 것처럼 신앙의 본질과 문화가 충돌하는 양상을 띠 때 우리는 어떤 문화적 전통을 무시하거나 무작정 생각도 못하게 하기 보다는 그 전통의 본래적 의미를 따져 볼 수 있도록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예컨대 조상제사는 부모공경의 정신의 발로이기에 절하기와 지나친 음식차리기에만 치중하기 보다는 추모예배를 통해 부모의 정신을 기리고 본받는 가족모두를 위한 학습의 기회로 삼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사랑을 확인하는 공동체적인 친교가 일어나는 기회임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한국일, 2005). 그동안 개신교는 사실 제주도내에서의 조상제사에 대한 진지한 연구와 토론이 부족하였고 “선포에는 힘을 쏟았으나 복음을 몸으로 살며 보여주는 존재로서의 선교는 부족하였다”고 생각지 않을 수 없다(서성환, 2008).⁴⁾ 이제라도 진지한 연구와 토론 그리고 신앙적 전통과 문화적 전통이 충돌하는 것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것도 역시 교육선교의 중요한 연구 재료가 된다.

위의 설문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도의 교회는 대부분 70명 이내의 소규모 교회이며 재정적 자립 조차 힘들어서 어린이부를 만들어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빠져 나가는 젊은 인구와 낮은 출산율로 인하여 어린이부서 존속 자체가

4) 서성환목사는 일찍이 장신대 기독교교육과와 신대원을 졸업하고 독일에서 다년간 사역하면서 공부도 병행하였다. 위에서 인용한 그의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은 제주교육선교를 꿈꾸는 사람은 꼭 필독해야 할 귀한 자료이다. 특히 이 책의 2장 타산지석(타종교의 성장 이유 분석) 부분은 실로 탁월한 관찰이며 적용가능한 통찰로 가득 차 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교회의 현실이 유지나 수적 부흥보다는 생존에 있는 현실이다보니 어린이부서에 투자하고 적절한 기독교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러나 정작 가장 심각한 문제는 출석하는 어린이들이 있어도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기독교교육적 훈련을 받은 교역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이다. 물론 각 교단의 성서신학원 같은 신학교육기관에서 훈련을 받은 소수의 교역자들과 제주열방대학과 같은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은 평신도 지도자들이 다소 있으나 어린이들을 전인적으로 양육하고 기독교교육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이들의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설문조사로 인하여 밝혀졌다. 이제라도 교육선교를 심각히 생각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부서를 활성화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제주도 내의 복음화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고 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선교와 교육의 시명을 수행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응답으로 시작된 것이 제주교육선교연구원이다.

VI. 교육선교의 가능성 제고를 위한 실천방안 및 결론

위에 나타난 설문 조사는 앞으로 진행될 제주교육선교에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어린이 예배에 관한 조사는 구체적인 교육선교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결정적인 실마리를 제공한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독교교육적 전문 훈련을 받은 교사를 양산하고 각 지교회에 확충하는 것은 매우 시급한 사안이라고 사료된다. 또한 공과공부를 효과적으로 가르치고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심어줌으로 하나님의 건강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전문 교사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뿐만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자라나며 겪는 정체성 문제와 진로문제 등에 대하여 상담해주

고 삶을 함께 할 수 있는 교사가 시급히 요청된다. 무엇보다 이 모든 교육선교적 문제와 도전들에 대한 응전과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현재 제주도에 존재하는 교회의 담임교역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제주교역자를 위한 교육세미나가 정기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리라고 본다.

위에서 파악한 필요와 도전에 대한 응전과 필요에 대한 응답으로 2012년 4월 10일에 창립된 제주교육선교연구원(이사장: 서성환목사, 원장: 김도일교수)의 사역을 소개하고 이 사역이 어떻게 제주 교육선교의 가능성을 촉진시키는 실천방안이 될 수 있을지를 다루고자 한다.

1. 취지와 목적

제주교육선교연구원은 제주복음화의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전략이 자라나는 세대에 대한 교육선교이다. 교육선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를 감당할 잘 훈련된 교사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외지역인 제주도에서 잘 준비된 교육지도자를 구하기는 힘들고 작은교회에서는 더욱 그렇다. 교회학교가 쇠락의 길을 걷고 있고 다음세대에 시간과 재정을 투자할 여력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평신도 교육지도자들을 양성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을 살리고 교회의 부흥을 도모하며 결과적으로 제주복음화에 다가가고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주교육선교연구원의 설립취지이다.

제주교육선교연구원은 제주에서 교육선교를 수행할 통전적으로 준비된 교육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교육선교에 대하여 연구하고 실천하며 교육지도자들의 연구를 돕는다. 교육지도자들의 교류와 협력을 돕는다. 교육선교와 관련된 출판 및 장학금 출연을 하여 교육선교의 저변 확대를 도모한다.

2. 운영체제

- 1) 운영정신: 열린 에큐메니칼(연합과 일치) 정신을 존중하며 초교파적으로 협동하며 운영한다.
- 2) 운영방침: 교수진은 교육선교에 헌신하는 전국의 전 현직 기독교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교수와 목회자들로 구성한다. 이사회를 구성하여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무엇보다 제주도에서 평생을 사역하기 원하는 현지 목회자들로 구성된 제주교육선교연구원은 이사장 서성환목사의 비판적인 성찰과 깊은 신학적인 이해, 그리고 교육선교에 대한 소망과 확신으로 그 뿌리가 잘 내려지고 있다고 본다. 비록 작은 교회들이 초교파적으로 모여 이 사역을 하지만 제주사랑선교회라는 건강한 목회자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연구하며 제주의 과거, 현재, 미래를 통전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역 중의 하나인 교육선교에 헌신한 이들이 모여 연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였기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확신한다.

연구원생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으로 교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하고 교회는 추천한 사람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를 권장하고, 장학금을 받은 연구생은 교육기간이 끝나 인증을 받은 후 해당 교회에서 일정기간 봉사하는 것을 권장한다.

- 3) 운영체제: 학기는 4학기제(2년)로, 각 학기초(매년 3월, 9월)에 교수들이 강좌선행학습을 위한 안내를 하고, 봄학기는 5월과 6월, 가을학기는 10월과 11월에 교수들이 제주도에서 가르치고 지도한다. 교육과정은 핵심신학의 분야(신구약성경, 교회사, 조직신학, 선교학 등)와 기독교교육학의 제분야(기독교교육의 이해, 학습자이해, 기독교교육과 신학, 기독교교육방법, 성서교수법, 기독교교육

사, 기독교교육과 상담, 기독교교육과 전도, 교회학교행정, 성경공부인도법, 교회학교와 레크리에이션, 행사기획법, 회의인도법 등)를 구체적인 순서를 정해 지도한다.

- 4) 교수와 현장 목회자의 봉사: 교수와 목회자는 전원 재능기부의 형식으로 제주교육선교연구원에서 봉사하며 연구원에서는 교통비와 숙식을 제공한다.

2012년에 이미 두 학기를 20명의 연구생들과 함께 성공적으로 마친 제주교육선교연구원은 이제 세번째 학기를 준비하는 중에 있다. 현재까지 순복음대학원대, 웨스터민스터신대, 장신대, 감신대, 연세대, 목원대, 침신대, 나사렛대, 실천신학대학원대, 서울기독대, 한신대 등의 전현직 교수들이 지도하였고 앞으로도 교육선교를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한 바 있다. 여기까지 우리는 교육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의 실천으로 설립된 제주교육선교연구원의 사례를 다루었다. 아직 역사가 짧고 개선할 것이 많은 걸음마 수준의 작은 제주교육선교연구원이지만 끊임없는 성찰과 반성, 그리고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인 교육선교의 비전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교육선교가 이 시대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케하는 가장 효과적인 사역이기 때문이다. 이 사역이 과연 시종일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이루어지는 사역으로 지속되어 제주복음화에 기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 글을 마친다(김도일, 2010).

참고문헌

- Bosch, David (1993). **세계를 향한 증거**. 전재욱 역. 서울: 두란노.
 Bruggemann, Walter (1999). **월터 브루그만의 창조적인 말씀을 통한 기독교교육**. 강성열, 김도일 역. 서울: 한들출판사.

- D'Orsa, Jim and Therese (2008). "Education in Mission: Mission in Education." Australian Association of Mission Studies Conference: The Christian Mission in the Public Square, Canberra, 2-5 October.
- Maffett, Samuel A. (2010). "복음화 사역에서 현지 교회가 차지하는 위치." 이 용원 역. **선교와 신학**, 307-338.
- Newbigin, Lesslie (2012). **오픈 시크릿: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선교. 홍 병룡 역. 서울: 복 있는 사람.
- Russell, Letty (1972). **기독교교육의 새 전망**.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henk, Wilbert R. (1984). *The Church in Mission*. Pennsylvania: Herald Press.
- 김도일 (2010). "시종일관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교육하기." **기독교교육논총**, 24, 491-518.
- 서성환 (2008). **제주선교 100년, 어제와 오늘과 내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손운탁 (2011). "선교교육의 기초이론과 실제." **선교와 신학**, 27, 441-484.
- 이우정 (1985). **한국기독교여성백년의 발자취**. 서울: 민중사.
- 정승현 (2007). "하나님의 선교와 선교적인 교회." **선교와 신학**, 20, 185-212.
- 조은하 (2007). "사경회와 기독교 여성교육." **기독교교육논총**, 14, 189-220.
- 한국일 (2005). "조상제사에 대한 선교신학적 고찰." **장신논단**, 24, 399-424.
- 한국일 (2012).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론." **선교와 신학**, 30, 75-115.

Abstract

A Study on Educational Mission
- Seeking to Enhance Educational Mission Ministry in
Jeju Island -

Do-Il Kim
Presbyterian College &
Theological Seminary

Jesus entrusted all believers the task of educational mission. Go, make disciples, baptize them, and teach all that He had commanded were crucial components of His commandment. In order to carry out the Great Commandment, this paper set the theory of educational mission. Besides, it not only dealt a new perspective on the place of educational mission, but it focused on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bases of the educational mission. As a result, it discovered that the person who carries out the Lord's commandment must have a clear understanding of who he/she is and carry out the educational mission with respect and wholistic understanding of Sitz im Leben of the place and people whom he/she serves. Then a survey on children department in churches at Jeju Island. On that survey result and analysis, this paper sought possible ways to promote educational mission for the future and the author founded Jeju Educational Mission Institute to enhance educational mission ministry in Jeju Island by equipping lay-persons for children and youths.

30 기독교교육논총 제34집

Key words | education, mission, educational mission, Jeju Mission, Survey
on Children's Department in Jeju Island churches

원 고 접 수 : 2013. 04. 30
게 재 승 인 : 2013. 05. 31

논 문 심 사 : 2013. 05. 22

K C I